

메시 어디로

“바르사 떠나겠다” 이적 요청... 맨유·맨시티·PSG 영입전 전망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 결별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차기 행선지가 축구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구단에 ‘당장’ 떠나고 싶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메시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7억 유로(약 98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바이아웃 금액과 1300억원이 넘는 연봉 등을 고려하면, 그를 모셔갈 수 있는 팀은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빅이거’ 목표로 의기투합? 1순위는 PSG

막대한 카타르 자본을 등에 업은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PSG)은 메시의 새 동지가 될 팀 ‘1순위’로 거론돼왔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인 ‘빅이거’를 향한 PSG와 메시의 오랜 배고픔은 메시의 PSG행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메시는 2015년 이후 5년 동안이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기간 그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빅이거를 세 차례나 들어 올렸다.

PSG의 배고픔은 더하다. 카타르 자본에 인수된 뒤 7차례나 프랑스 챔피언에 올랐으나, 진정한 UCL 우승은 아

1조원 육박 바이아웃 걸림돌 법정싸움으로 비화 가능성도

직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는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라는 특급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준우승에 그쳤다.

2017년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PSG로 이적시킨 게 메시의 주요 불만 사항이라는 점도 메시의 파리행 가능성에 힘을 실는다.

◇펍 이고는 맨시티와 심상찮은 맨유... ‘프리미어러거 메시’ 가능성도

‘돈’과 함께 ‘인연’까지 고려하면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는 PSG 이상의 후보다.

2008~2012년 바르셀로나를 지휘했던 펩 과르디올라 현 맨시티 감독과 메시는 2008~2009시즌 트레블(3관왕)을 포함해 라리가 3회, 코파 델 레이 2회, 유럽챔피언스리그(UCL) 2회 등 수많은 우승을 합작했다.

맨시티 역시 PSG와 마찬가지로 아직 UCL 우승을 경험하지 못해 통 큰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구단주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자 만수르여서 자금력도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시티와 ‘메시 영입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조원’ 육박하는 바이아웃... 바르사가 안 놔주었다면?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이적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야기는 바이아웃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바르셀로나가 계약 기간인 2021년까지 팀에서 뛰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메시를 데려가려는 팀은 1조원에 육박하는 바이아웃 금액을 모두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양 측의 계약서에는 보통 시즌이 끝나는 때인 6월 중으로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2019~2020시즌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지금 발동해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6월은 이미 흘러갔으니, 메시는 2020~2021시즌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이라는 것이다.

BBC는 “(법정 분쟁으로 비화한다면) 팬들은 메시가 2020~2021시즌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메시



혼신의 오버헤드킥 25일 스페인 산 세바스찬 아노테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 바르셀로나의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볼프스부르크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오버헤드킥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대회 출전 못하는 메이저 챔프 ‘황당’

포포프 비회원 자격 AIG오픈 우승 ANA·US여자오픈 참가 안돼 논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AIG 오픈에서 우승한 조피어 포포프(독일)가 다음 달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과 12월 US여자오픈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메이저대회 챔피언이 당해 시즌 다른 메이저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뒤엎힌 투어 스케줄과 투어카드 없이 메이저대회에 탈락 우승한 포포프의 특이한 신분이 이런 기막힌 사태를 불렀다.

예초 3월 말에 개최하려던 ANA 인스퍼레이션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회를 9월로 연기하면서 출전 자격을 당시 기준으로 동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LPGA투어가 언제 재개될지 몰라 내린 결정이었다.

당연히 포포프는 3월에 확정된 ANA 인스퍼레이션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회 직전 LPGA투어 상급랭킹 20위 이내 선수는 추가로 출전시킨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포포

프는 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투어카드가 없는 비회원 신분으로 출전에 받은 상금은 상급랭킹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포프가 올해 마라톤 클래식과 AIG 오픈 등 두 차례 출전한 대회 모두 비회원 신분이었다.

6월에 열려다가 12월로 일정을 바꾼 US여자오픈 역시 당시 기준으로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해 포포프의 자리가 없다.

포포프는 AIG 오픈 우승으로 ANA 인스퍼레이션, US여자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등 나머지 메이저대회 5년 출전권을 보장받았으나 효력은 2021년부터다.

다만 KPMG 여자PGA 챔피언십은 당해 시즌 투어 대회 우승자에게는 출전권을 부여하기에 포포프가 출전하는데 장애가 없다. /연합뉴스

영암서 ‘코리아 로드 레이싱 챔피언십’ 성황리 마무리



대한모터사이클연맹(KMF)이 주관한 코리아 로드 레이싱 챔피언십 4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0 KRRC 4라운드가 지난 23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에서 열렸다. (사진)

‘KRRC’는 코리아 로드 레이싱 챔피언십(Korea Road Racing Championship)의 약자로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사이클 대회다.

이번 KSB1000 4라운드에서는 송규환이 24:20.683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KSB1000N에서는 김병진이 24:06.456으로 1위에 올랐다.

하위 클래스, 400cc이상 600cc미만인 SS600에서는 김경원이 21:31.704로 1위를, SS600N에서는 김경현이 21:45.919로 정상에 올랐다.

200cc이상 500cc미만 KP300에서는 전영재가 18:54.004로 1위에, KP300N은 박성렬이 18:57.244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한편, 9월 5,6일에 예정되어 있던 ASA-KIC컵 3라운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취소돼 10월에 더블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는 ASA가 후원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1위 존슨은 연습벌레...우승한 다음날도 연습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 우승으로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 더스틴 존슨(미국)의 열성적인 연습이 화제가 됐다.

26일 골프위크에 따르면 존슨은 매사추세츠주 TPC 보스턴에서 노던 트러스트 시상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개최 코스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이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동했다.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저녁이다. 경기가 기상 악화로 지연돼 시상식은 저녁 9시 가까이 끝났다. 삼페인을 터뜨리는 우승 파티는 커녕 비행기 안

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때웠다. 이튿날 존슨은 오전 10시에 체육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을 체육관에서 보낸 존슨은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으로 가서 7홀을 들었다. 다음 날에는 오전 7시에 올림피아필즈 컨트리클럽 퍼팅 연습장에 나타났다. 퍼팅 연습을 마친 그는 8 개홀 연습라운드를 치렀다.

존슨은 “우승을 음미할 시간이 없긴 했다”면서 “플레이오프 2차전 준비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테넷, 오케이 마담
3관	오케이 마담
4관	테넷, 빅사크3: 젤리몬스터 대소동
5관	테넷
6관	테넷,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9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플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반교: 디텐션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강철비2: 정상회담
8관 씨네커플	나의 소녀시대, 오케이 마담, 69세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제3회 GAC그라제 축제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9. 2.(수)~3.(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3회 GAC그라제 축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9. 2.(수)~3.(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즐거움 문화산책

